

21세기 문화선도를 위한 열린공간

파주단지 인포메이션센터 준공 · 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9월 9일 오전 9시 시범지구 및 단지 전체의 건축 설계 매뉴얼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1일 착공한 인포메이션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242평(본건물 152평, 중정 30평, 전망대 60평) 규모의 인포메이션센터는 입주사의 사옥건축을 위한 정보·자료제공 및 현장사무소 기능을 한다. 이기웅 이사장은 “이제 파주단지 건설을 위한 건축의 배움터가 완공됐다. 인포메이션센터를 중심으로 21세기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열린공간의 미를 추구한 인포메이션센터는 파주단지의 개요와 현황, 건축 및 환경 관련 전시, 건축 관련도서 전시기능을 갖췄으며, 사옥설계 현장회의실, 해외출판인 및 출판단체 현장 방문행사,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된다. 파주단지의 사무구 기능과 현장 연락 사무소 기능,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준비 기능을 갖췄고, 자료실과 서점 및 카페 공간도 마련했다. 설계자인 한국종합예술학교 민현식 교수는 “앞으로 단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불확정적 공간의 의미를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조합은 6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2차 개발지구 부지 6만여 평에 대한 매입을 체결, 1단

미 ‘도서관 및 정보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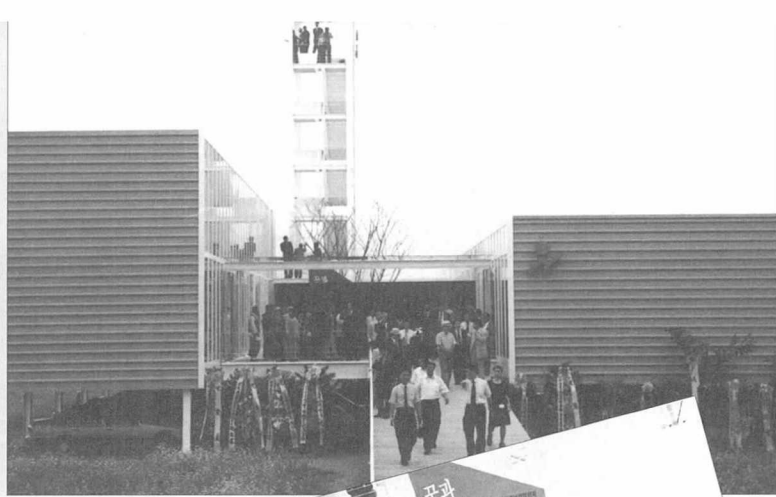
윌라드 사무총장 방한

미국 도서관 및 정보과학에 대한 국가위원회 로버트 윌라드(54) 사무총장이 9월 2일 방한, 한국 도서관 관련 인사들을 상대로 ‘미국 국가정보 정책’에 대해 브리핑했다. 그는 “현재 미국 도서관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인터넷의 활용, 박물관과 도서관의 유기적 결합, 저작권 문제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 과제는 각국의 도서관 관계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도서관계의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브리핑에는 이두영 한국도서관협회장, 한상완 전국문화정보학수협회의회장, 김수남 미국 공보원 정보자료센터 관장 등이 참가해 개별도서관의 자료를 하나로 묶는 ‘도서관 자매결연(sister library)’ 캠페인, 온라인 도큐먼트, 박물관과 도서관의 통합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는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도서관 지식정보 사회의 기반’이란 주제로 제37회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했다.

— 김연수 기자



지난 9월 9일 준공한 인포메이션센터 전경과 내부의 열린공간.

계 실시계획 승인면적 248,810평(산업용지와 문화시설 용지 가처분면적 121,500평 포함) 전체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다. 따라서 인포메이션센터 준공과 함께 파주단지 건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1차지구에 52개사, 2차지구에 66개사가 입주한다.

— 오원진 기자

출판학회, 출판진흥법(안) 제출

9월 29일 공청회 개최

출판문화학회(책임연구원 전영표 신구대 출판미디어과 교수)는 지난달 출판진흥법 초안을 마련해 문화관광부에 제출했다. 법안의 골자는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과 출판·인쇄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 총칙, 출판사 및 인쇄사(기존 인쇄소) 등록, 외국간행물 수입추천, 독서진흥 및 독서진흥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마련했다. 이어 출판유통의 기반구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출판정보센터,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기금, 보칙, 벌칙, 부칙 등을 마련했다.

법률의 주요 안건은 독서진흥을 위해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조받도록 했고, 출판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확대를 요구했다. 출판·인쇄문화산업진흥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판매되는 모든



지난 8월 출판계 중지를 모은 법안에 대해 토론하는 전문가 간담회

간행물에 일정률의 자조금 부과와 정부 출연금 및 용자금 등으로 마련하고, 기금은 한국출판진흥재단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한국출판정보센터를 설립해 국제출판문화 진흥도 도모했다. 또한, 정부는 출판·인쇄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출판유통 등에 투자할 경우 세제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간행물의 정가유지

를 규정해 모든 도서와 재판매 유통의 경우까지 지키며, 정가제 유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했다.

한편, 대한인쇄협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제출했다. 출판계는 정책기획위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9월 15일 4개 단체장회의, 9월 29일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초순 제출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각계에서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홍명희 문학제 열어

충북민예총 문학위원회(회장 도종환)과 세계절출판사(대표 강갑실)는 9월 19일 충북 괴산 예술의전당에서 <제4회 홍명희 문학제>를 열었다. 벽초의 타계 30주년이자 <임꺽정> 연재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벽초 홍명희와 가상 대담>으로 진행됐다.

저작권 문화가족 연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용)는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속초 설악금호리조트에서 <'99 저작권 문화가족 연수>를 갖는다. 참가대상은 저작권문화학교 저작권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자(1~13기)와 저작권 관련단체 및 기관 실무자 등이다.

호주 도서전 행사

저작권 중개업체인 인터오스트레일리아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 교보문고 외국 서적부 앞에서 '호주 도서전'을 가졌다. 시드니 올림픽과 호주 원주민 문화에 대한 서적 및 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출판물 550종, 1500여권이 선보였다.

◆723-2653

일본 관련 지원사업 공모

일본 국제교류기금은 2000년도 일본어 교육, 일본 연구,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공모사업을 12월 1일까지 접수한다. 출판 관련 프로그램은 '출판'과 '번역'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일본어 출판지원은 인쇄·제본비의 50%, 번역지원은 번역비의 40%를 지원한다.

◆765-3011

현대 한국문학 1백년 심포지엄

대산문화재단(이사장 신창재)은 9월 16일부터 이틀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현대 한국문학 1백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금세기 한국문학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이번 행사에는 김우창·김병익·유종호 등 34명의 평론가들이 논객으로 참여했다.

삼성문학상 시상식

삼성문화재단(이사장 이진희)와 문학사상사(대표 임홍빈)가 공동 시행하는 '99 삼성문학상' 시상식이 9월 15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다. 수상자는 장편소설 <그 바다는 어디로 갔을까?>의 김성아, 장막희곡 <애벌레>의 임태훈, 장편동화 <물갈이>의 안주영.

리눅스 상표권 침해논란

컴퓨터 윈도우 대안 운영체제로 부상한 리눅스(Linux)의 상표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발단은 서울 강남에 사는 권용태씨가 리눅스를 개인 상표로 등록해 불거졌다. 97년 7월 5일 등록한 그는 교보문고 등에 <상표권 침해금지요청> 문서를 보내 관련 서적 및 디스크 등에 대한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출판사측 법적 대응 대표인 영진출판사측은 상표등록 불가요건 제18항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전인 95년 이를 약용해 상표를 등록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네티즌들 역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상품을 개인이 독점하려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중한사전, 한중사전 출판기념회

진명출판사(대표 안광용)는 8월 27일 중국 연길 송기호텔에서 <진명 중한사전, 한중사전>(홍룡강 조선민족출판사)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간행물윤리위,

제35차 청소년 권장도서 선정

▲문학 <남도기행>(홍성원, 문학과지성사), <버드나무 꺾질에 세우고 싶다>(이정록, 문학과지성사), <그대 정동진에 가면>(이순원, 민음사), <불을 훔친 사람들>(프랑수아 봉, 김병욱, 예문), <나는 너를 세상의 중심에 두었다>(안드레아 헨스켈, 박의춘 외, 끌리오) ▲역사 <다시 보는 팔만대장경판 이야기>(박상진, 운송신문사),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백유선 외, 두리), <책의 역사>(브뤼노 블라셀, 권명희, 시공사), <세계사의 숨겨진 이야기>(쓰리하라 야스오, 최민순, 경학사), <사랑, 그 딜레마의 역사>(볼프강 라트, 장혜경, 끌리오) ▲철학 <왕따와 은따>(강영계, 답게), <기분 나쁠 때 읽는 책>(조정욱, 철학과현실사), <자 떠나자 원효 찾으러>(장휘옥, 시공사), <한국철학, 화두로 읽는다>(임선영 외, 동녘) ▲정치 <한국 이대로 가면 망한다>(주치호, 신폴엔터프라이즈),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강형기, 비룡), <엘리트의 반란과 민주주의의 배반>(크리스토퍼 래시, 이두석 외, 중앙M&B) ▲경제 <기업을 위한 변명>(송병락, 김영사), <엄마·아빠와 함께 읽는 어린이 경제신문>(서울경제 기획특집팀, 글읽는세상) ▲경영 <전자상거래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노정용, 현실과미래), <순정의 21세기 경영전략>(이시카와 요시미, 이정환, 소담출판사) ▲사회 <간디의 물레>(김종철, 녹색평론사), <도덕이라는 이름의 자본>(박순철, 중앙M&B) ▲과학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박상준·박경수, 쓰인돌), <살아있는 것빌 이야기>(백용해, 창조문화), <Mr. 풍 과학에 빠지다>(송은영 글, 권운주 그림, 한울림), <자연과 우주의 수수께끼 78>(김제완 외, 서해문집),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과학마술 77>(고토 미치오, 오순훈, 아카데미서적) ▲예술 <머리로 보는 그림, 가슴으로 느끼는 그림>(박우찬, 제원), <햇살속에 발가벗은>(박인식, 문예마당),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폴 고갱, 최경해, 가람기획) ▲교양 <베란다가 있는 풍경>(이옥순, 책세상), <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달라이 라마, 제프리 홉스킨, 심재룡, 숲), <한국의 암자화>(임세권, 대원사) ▲아동 <만년사쓰>(방정환 글, 김세현 그림, 길벗어린이), <좀더 깨끗이>(강무홍 글, 정순희 그림, 비룡소), <내 이름은 나답게>(김향이, 사계절), <야! 가자, 남극으로>(장순근, 창작과비평사), <달빛 노래>(스콧 오델, 김옥수, 우리교육), <사랑하는 에쿠를 위하여>(미라 로베, 이인배, 해인).